



“정부는 ‘코로나백신’ 부작용 애써 축소 말라” “접종 후 극심한 두드러기-혈전은 부작용” 왜 ‘인과성’ 부정하나

“정부가 코로나백신 부작용 애써 축소?”. “백신 주사후의 사망자와 부작용을 호소하는 접종자들을 하나같이 기저질환 때문” 발표. “이 방역 정상인가?”. 적잖은 국민들은 정부의 방역에 이 같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또 백신을 맞을지를 놓고도 갈등하고 있다.

의료인들은 그럼에도 “경미한 부작용-소수의 치명보다 ‘백신’을 접종받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본지는 이 가운데 “정부의 부작용 애써 축소”를 주목한다.

코로나는 중국 보건당국이 “2019년 12월 31일 우한(武漢)에서

있다. 코로나로 세계 무역-여행 등은 제한적이다. 각국은 자국의 전파를 우려, 사실상 문을 닫아걸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서는 중국서 코로나가 최초 발생했음에도, 우리 정부가 2020년 5월 9일 총선을 전후, 중국인 입국을 전면 허용한 것은 고개 가우뚱 거러진다.

발생 초 길가던 사람이 쓰러지고, 셀수 없이 놓인 관(棺), 관을 옆에 두고 묻기위해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는 영상 등이 뉴스로 보도돼 지구촌은 공포에 휩싸였다.

이무렵 세계적인 부호 빌 게이츠는 “백신 개발을 지원하겠다”며 거

0.0025%)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코로나 백신에 의한 부작용-사망”이라고 강하게 주장하며 신고한 사례는 무려 716건, 이에서 접종 후 사망자로 변경된 경우가 295건 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코로나 백신 피해 주장신고 건수는 화이자 535명, 아스트라제네카 434명, 얀센 13명, 모더나 9명 순. 그러나 방역당국의 백신부작용 사망 결론 건수는 2~3건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백신패스제’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져 인권침해 비판까지 일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1997~2013년 15년 동안의 총 백신 사망자 수보다 많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한국에서 보고된 코로나19 백신 사망자 수는 1천33명(6월 0시)에 육박하지만, 코로나19 백신주사 사망자가 실제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 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코로나19 백신의 가장 큰 부작용 중 하나는 생식 기능 파괴로 여러 전문가들이 백신이 불임을 일으킨다는 염려를 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코로나19 백신으로 더욱 악화될 것”이라면서 “여성-청소년 및 임신(산)부 접종 철회, 백신패스 도입 계획 철회, 백신 접종 후 ‘인과성 없음’을 남발에 대한 책임자 처벌”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본지는 의학계의 조사가 뒷받침되지 않은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결같은 “인과성 없다”는 당국의 발표도 동의 할 수 없다.

언론과 적잖은 전문가들은 “코로나 백신은 심각한 두드러기 증상인 아나필락시스, 피가 응고되는 혈전 등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보건당국은 “인과성 없다”만 연발하고 있다.

본지는 “정상인이 백신주사 후 사망했다면 이는 부작용이고, 정부가 적절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본다. 또 “인과성 없다” 일관에 대해선 “백신 제조사와의 어떤 뒷거래가 있구나?” 의심까지 하게됨을 밝힌다.

외국의 제약 애널리스트인 로니 같은 “화이자가 추가 계약(부스트샷 등의 의미)을 확보하게 되면 올해 백신 매출만 435억 달러(약 50조 685



사설 필자
편집인 김영길

억 원)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외신은 전한다. 백신 매출은 작년 화이자의 총 매출 약 420억 달러를 뛰어넘는 것이라고 했다.

본지는 “인과성 없다”가 아닌 “화이자 등을 상대로 최소한의 배상을 요구하고, 받아내는 애국정신을 가져 줄 것”을 주문한다. 화이자 외에 아스스트라제네카, 모더나, 존슨앤존슨 등도 코로나 백신으로 엄청난 돈을 벌었다. 본지는 “우리 정부가 이들 제약사에 부작용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무리가 아니다”고 본다.

질병청, 백신접종후 사망 총 1,011건(접종자의 0.0025%) 집계
백신 부작용-사망 강하게 주장한 신고사례 무려 716건 달해
홈페이지에 부작용→사망자 변경 경우 295건-실제인정 2~3건
정부, 백신부작용 원인 진단분석 제조사에 보상요구 용기 없나
선두 화이자, 올 백신 매출 435억 달러-작년 총 매출액 초과

원인불명의 폐렴이 발병했다”고 발표, 세계에 알려지게 됐다. 만 2개월 후면 발생 2년이다. 그러나 코로나 ‘펜데믹’은 수그러들지 않고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 상황은 10월 11일현재 확진 332,816명(이하 코로나 보드), 사망 2,583명, 치명률 0.78%. 총 검사자수는 14,977,419명, 음성판정 13,388,858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11일 현재 백신 접종자는 1차기준 39,923,747명(77.7%) 2차 30,444,700(59.3%)로 집계되고 있다. 11일(0시기준)은 확진 1,865명, 며칠전의 2천명 보다는 조금 줄었다. 그런데 보건당국은 또 백신접종을 권고를 넘어 ‘강제’쪽으로 가고

금을 기부했고,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은 약 8개월만에 백신개발을 보고했고, 미국의 대통령이 백신을 맞는 뉴스가 전세계로 전해졌다. 긴박한 ‘상황’이 마치 스케줄 같이 돌아갔다

그런데 국내의 경우 발생(2020년 3월-중국입국 여성)에서 오늘까 지엔 고개 가우뚱거려지는 게 너무 많다. 특히 백신을 맞은 후 사망했음에도 보상금(국내 최고4억원 정도)을 받게된 케이스는 극히 드물다. 질병청 홈페이지는 10월 3일 0시 기준,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백신접종후 사망자수는 총 1,011건(총 접종자의

코로나 바로 알기 시민행동-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 협의회는 지난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여성-청소년 등의 백신접종 계획 철회”를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9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여성-청소년과 임신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중단”을 촉구하고 ‘백신패스 도입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 백신으로 역대 최고의 백신부작용과 사망자들이 보고되고 있다-미국 백신 부작용 보고 시스템(VAERS)에는 지난 6개월의 코로나19 백신 사망자 수는

사이언스앤디뉴스

창간 2004년 6월 1일
등록번호 서울라 11635
간별 월간(타블로이드 신문형 12판 발행)
구독료 1,000원
발행인 이재덕
편집인 김영길 주 간 장석기
의학편집인 의학박사 오홍근
약학편집인 약학박사 신철교
인쇄인 김규석
미국본사 대표(L.W Markah) : 의학박사 안우성
서울본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104-20 (원진빌딩 4층)
미국본사 Lakewood Life Science 20145 S. Pioneer Blvd. Lakewood CA 90715
USA 714-926-5155
전화 (02)924-5822
팩스 (02)924-5823
이메일 chief@sciencemd.com
www.sciencemd.com

본지는 신문-잡지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가스티인^{CR}정
Mosapride citrate 15mg

하루 한 알로
24시간 위를 편안하게

한국의 다국적 제약기업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1일 1회 투여 용법의
위장관운동촉진제 가스티인^{CR}정,
24시간 약효 지속으로
환자의 복약 순응도를 개선합니다.

1일 1정 위장관운동촉진제 —
가스티인^{CR}정
Mosapride citrate 15mg